

# 청년 열 명 중 셋은 '백수'

## 임근근로자 첫 취업까지 11.6개월...사포는 15개월만에 62만명 '첫 취업' 2년 이상...첫 임금 100만원 미만 17%

청년층(15~29세) 10명 중 3명이 미취업이었다. 또 학교 졸업후 1년 가까이 백수로 지내며 힘겹게 구한 첫 직장을 1년 3개월만에 그만두고 있었다.

첫 직장에 취업할 당시 남성의 임금이 여성보다 높았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경제활동 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졸업이나 중퇴한 청년층 482만3000명 중 339만 1000명(69.4%)만이 취업했다.

147만2000명(30.5%)은 미취업자 신세다. 1년 전보다 5만1000명 증가한 수치다. 미취업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실업' 상태는 44.4%로 1년 전보다 1.2%포인트 늘었다.

그러나 미취업자 절반만 '직업교육 및 취업시험 준비'(38.6%)나 '구직활동'(12.9%)을 하고 있었다. '그냥 시간보낸다'는 비율은 17.4%였다.

졸업이나 중퇴 후 첫 일자리 고용형태가 임금근로자(97.8%)인 경우 첫 취업까지는 평균 11.6개월이 걸렸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5년 이후 두 번째로 길다.

역대 최장 기간은 2006년의 평균 12개월이었고, 8년 만인 2014년에는 올해와 같았다. 첫 취업 평균 소요 기간은 2010년 10.4개월로 역대 가장 짧았다.

첫 취에 걸리는 시간은 3개월 미만이 49.9%(204만3000명)로 가장 많았지만 2년 넘게 걸린 '장수생'도 16.2%(62만2000명)나 됐다.

첫 직장을 그만두는 데까지는 평균 1년 2.7개월이 걸렸다. 2015년의 1년 2.6개월 이후 최단 근속기간이다. 퇴직 사유로는 '보수·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불만족'이 51.0%로 단연 높았다.

뒤이어 '건강·육아·결혼 등 개인·가족적 이유'(13.7%), '임시적·계절적인 일의 완료 및 계약기간 끝남'(12.1%), '전망이 없어서'(7.1%), '전공·지식·기술·적성 등이 맞지 않음'(6.7%), '직장 휴업·폐업·파산'(2.4%) 등의 순이었다.

임금근로자로 처음 취업한 청년층 60.8%는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

는 정규직 일자리를 잡았으나 21.0%는 일할 기간이 1년 이하인 계약직이었다. 일시적 일자리를 구한 청년도 11.9%나 됐다.

첫 직장에 취업할 당시 임금은 '100만~150만원 미만'(37.5%)이라는 비율이 가장 많았다.

100만원에 못 미치는 최저생계비로 버틴 비율은 16.8%에 달했다. '50만~100만원 미만'이 13.4%였고 '50만원 미만'이 3.4%였다. '150만원~200만원 미만'과 '200만원~300만원 미만'은 각각 29.8%, 13.9%로 나타났다.

남녀 간 임금 격차도 두드러졌다. 첫 직장에 취업할 당시 500만원 이상 고액 임금을 받은 남성의 비율은 3.3%로 여성(1.5%)의 2배였다. '200만~300만원 미만'의 경우 남성이 17.8%로 여성(10.9%)보다 6.7%포인트 컸다.

반면 '50만~100만원 미만'과 '100만~15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은 남성 비율은 각각 12.8%, 31.9%였다. 같은 구간 여성의 경우 14.0%, 42.1%로 남성보다 높았다.



롯데마트 물놀이용품 대전 진행 19일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다양한 물놀이 용품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는 본격적인 물놀이 시즌을 맞아 오는 26일까지 물놀이 용품을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한다.

# 다단계 수당 상위 1% 5707만원...나머지 99% 47만원

## 공정위, 2016년 다단계판매업체 주요정보 공개

다단계 판매업체 수와 다단계 판매 시장 매출액이 소폭 감소한 반면 판매원 수와 후원수당 지급 총액은 증가했다. 상위 1%에 속하는 다단계 판매원과 99% 판매원 간의 수당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공개 대상 다단계업체 수는 전년 대비 4개 감소한 124개다.

2016년 다단계 판매 시장 매출액 규모는 전년 대비 0.4% 감소한 5조 1306억원이었다. 상위 10개 업체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0.04% 증가한

3562.45억원이었다. 다단계 판매업체에 등록되어 있는 전체 판매원 수는 전년 대비 4.1% 증가한 829만명이었다.

다단계 판매업체로부터 후원수당을 지급 받은 판매원 수는 전년 대비 1.2% 증가한 164만명으로 전체 등록 판매원 수의 19.8%였다.

2016년에 다단계판매업체가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1조7031억원이었다.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164만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16년에 후

원수당이 상위 다단계판매원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

상위 1%에 속하는 다단계판매원(1만6337명)이 2016년에 지급받은 후원수당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33만원(11.8%) 증가한 5707만원이었다.

반면 나머지 99% 판매원(162만여명)이 지급받은 후원수당은 전년 대비 6만원(11.3%) 감소한 평균 47만원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정보공개 자료를 토대로 다단계판매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스

# 롯데백 광주점, 여행준비, IT기기 이제는 필수품

### 휴가철 IT기기 인기 상승...휴대 간편·여행 질 높여



롯데백화점 광주점9층 애플매장에서 물놀이장에서도 음악감상을 할 수 있는 블루투스 스피커 등 IT기기를 살펴보고 있다.

휴가를 떠나기 위해 집을 챙기다 보면 어느새 예전에는 챙기지 않았던 IT용품을 필수적으로 찾게 된다. 함께 여행을 떠나는 친구, 가족

들과 추억을 남기기 위해 휴대폰의 다양한 기능 카메라 어플 사용으로 부족한 배터리를 바로 충전할 수 있는 '보조배터리', 여유롭게 풍경을 감상하거나 저녁 바비

큐 파티를 할 때 흥겨운 사운드로 여행에 감성을 더해주는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아이템으로 각광받는 '블루투스 스피커',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이들의 데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포켓 와이파이 기기', 장시간 이동으로 투정부리는 아이들을 위한 태블릿 PC 등 좀더 완벽한 휴가를 즐기 위해 이러한 IT기기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실제 롯데백화점 광주점에서는 본격적인 휴가 준비기간 중인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의 IT기기 품목 매출을 분석해본 결과 전년 대비 약 40%이상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IT기기의 작은 부피로 성능이 좋고 휴대하기 편리해 짐처럼 느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휴가의 분위기를 더욱 완벽하게 즐기도록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업계의 설명이다.

# 8~10월 전국 입주아파트 10만7300세대...전년비 50% ↑

## 85㎡이하 중소형주택 전체의 94.4% 차지

국토교통부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아파트는 전년 동기 7만1000세대 대비 50.3% 증가한 10만7312세대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5만4113세대로 전년 동기 3만4870세대 대비 55.2% 증가했다. 서울은 7421세대로 전년 동기 6610세대 대비 12.3% 늘

었다. 지방은 5만3199세대로 전년 동기 3만6536세대 대비 45.6% 증가했다.

수도권은 8월 배곧신도시 3601세대, 하남미사 1659세대 등 2만6279세대가 입주한다. 9월은 광주태전 2372세대, 화성 동탄2 1077세대 등 1만224세대, 10월은 위례신도시 2820세대, 수원 호매실 1452세대 등

1만761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방은 8월 대구 달성 3010세대, 경산 중산 1696세대 등 1만5344세대가 입주한다. 9월은 부산 장진 1938세대, 부산 신항만 2030세대 등 2만 2014세대, 10월은 세종시 2726세대, 아산 테크노 1351세대 등 1만5841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됐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2만 5189세대, 60~85㎡ 7만1615세대, 85㎡초과 5978세대로 85㎡이하 중소형 주택이 전체의 94.4%를 차지했다.

# 노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활기찬 산업현장!

## 노·사 갈등을 넘어 상생할수 있는 전남노사민정 사적 조정제도가 있습니다

### ▶ 노·사, 노·노 간에 갈등이 있나요?

- 전라남도 노사갈등 조정해결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 노·사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에 드립니다.
- 임금, 퇴직금, 해고, 산재 단체교섭 노조활동, 노동문제로 이로서향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등 누구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라남도 노사갈등조정해결실무위원회

